

기요스미 정원

이와사키 가문 3대에 걸쳐 조성한 명석(名石)의 정원



도쿄도 지정 명승 기요스미 정원

기념 스탬프 날인란

- 개원 년월일
1932년 7월 24일
- 개원 면적
81,091.27㎡
〔내역 정원 37,434.32㎡
개방 공원 43,656.95㎡〕
- 개원 시간
오전 9시 ~ 오후 5시
(입장은 오후 4시 30분까지)
*각종 행사 개최 등에 따라 개원 시간이 연장될 경우가 있습니다.
- 휴원일
연말연시(12월 29일 ~ 1월 1일)
- 무료공개일
미도리(녹색)의 날(5월 4일)
도쿄도민의 날(10월 1일)
- 정원 가이드(무료, 일본어)
토·일요일, 공휴일(오전 11시와 오후 2시, 하루 2회)

【문의처】
기요스미 정원 서비스센터
전화 03-3641-5892
우편번호 135-0024 東京都江東區清澄
(도쿄도 고토구 기요스미) 3-3-9

입 장 료	개인	단체 (20명 이상)	연간 패스포트 (기요스미 정원)	연간 패스포트 (정원 9곳 공통)
	일반	150엔	120엔	600엔
65세 이상	70엔	50엔	280엔	2,000엔
무료	초등학교 이하와 도쿄도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중학생 신체장애인 수첩, 사랑의 수첩, 정신장애인 보호복지수첩 또는 요육수첩을 지참하신 분 본인외 시종대시는 분			

집 회 장 (임 대)	①오전 9:00 ~ 12:30	②오후 13:00 ~ 16:30	③밤 17:00 ~ 20:30
	료테이 (40명)	5,500엔	5,500엔
다이쇼 기념관 (150명)	25,900엔	25,900엔	25,900엔

*6개월 전의 오전 10시부터 예약을 접수합니다. *개원 시간 내에 이용할 경우는 별도 입장료가 필요합니다.



【오시는 길】
《전철》
도에이 오에도선·
도쿄메트로 한조몬선
'기요스미시라카와'에서 하차,
도보 3분
《버스》
도에이 버스
가메이도역 북쪽 출구 7번 승차장
(門 33)·
도요미수이산후토 행
'기요스미테이엔마에'에서 하차,
도보 3분
*주차장은 없습니다.



문화재 정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도쿄도립 공원은 에도, 메이지, 다이쇼 시대부터 내려온 역사·문화·자연을 간직하고 있으며 모두 국가와 도쿄도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지진과 전쟁, 도시화 등을 거치면서도 보존되어 온 소중한 존재이며, 이들 소중한 존재가 보다 훌륭한 모습으로 후세까지 계승되도록 여러분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부탁말씀】

-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시거나, 정원 안에서 동식물을 채집하는 행위, 돛자리 등의 사용, 주류 반입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지 마십시오.
- 건물 및 경관물의 보호를 위해 장소에 따라 사진촬영 및 스케치를 사절할 경우가 있습니다.
- 문화재의 보존 및 수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공사를 실시할 경우가 있으므로 일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도쿄도립 문화재 정원 9곳

- 하마리큐 온시 정원
- 구 시바리큐 온시 정원
- 고이시카와 고라쿠엔 정원
- 리쿠기엔 정원
- 구 이와사키 저택 정원
- 무코지마 백화원
- 기요스미 정원
- 구 후루카와 정원
- 도노가야토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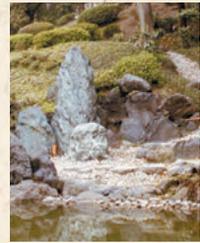
녹음의 수면에 역사를 비추는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회유식 임천 정원'. 전국에서 모은 명석을 배치한 연못가를 가면 철마다의 표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에도의 거상 기노쿠니야 분자에몬의 저택 부지였다고 합니다. 그 후 교호 시대(1716~1736)에 시모후사노쿠니·세키야도의 성주 구제 아마토노가미의 별저가 되면서 정원의 기본이 만들어졌습니다.

1878년에 이와사키 야타로가 이 저택 부지를 포함한 부근 일대 약 3만평을 인수하여 회사 직원들의 위로와 귀빈을 모시기 위한 목적으로 조원이 계획되고, 1880년에 '후카가와 천목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정원의 조성공사가 계속 추진되고, 스미다가와의 강물을 끌어들이는 다이센수를 비롯하여 석가산과 전국에서 모아온 명석을 배치하여 메이지 시대의 정원을 대표하는 '회유식 임천정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관동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1924년에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덜했던 동쪽 지역이 도쿄시에 기증되고 '기요스미 정원'으로서 복구·정비된 후 1932년 7월에 도쿄시의 공원으로서 개원되었습니다. 또한 1977년에는 정원 서쪽에 인접하는 부지를 개방 공원으로 추가 개원하였습니다. 1979년 3월 31일에 '기요스미 정원'은 도쿄도의 명승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923년 9월의 관동 대지진과 1945년의 대공습 시에는 피난처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다이센수 3개의 섬이 배치된 넓은 연못. 수면에 작은새와 스키야 양식의 건물과 나무들의 모습을 비치는 이 연못은 기요스미 정원의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스미다가와 강에서 물을 끌어들이고 있었으므로 도쿄만의 조수 간만에 따라 연못의 경관이 미묘하게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빗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명석

이즈이소이시, 이요야오이시, 기슈야오이시, 이코마이시, 이즈시키네지마이시, 사도아카타마이시, 빗츄미카게이시, 사누키미카게이시 등이 정원에 배치된 명석의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이 밖에 포석과 다리, 이소와타리, 가레타키를 포함한 수많은 돌들이 정원 안에 배치되어 있어, 마치 '석정'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명석들은 이와사키가가 소유했던 배를 이용해서 일본 전국의 산지에서 모아온 것들입니다.

후지산

정원 안에서 가장 높은 석가산입니다. 관동 대지진 이전에는 정상 부근에 나무를 심지 않고 영산백이나 철쭉 등 관목류를 가로 방향으로 줄지도록 배치하여 후지산에 길게 뻗는 구름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일년 내내 볼 수 있는 들새 : 논병아리, 호도매, 직박구리, 물까치, 찌르레기, 박새, 왜가리, 해오라기, 민물가마우치, 붉은부리갈매기 등
여름의 들새 : 쇠제비갈매기, 제비 등
겨울의 들새 : 멧기린쭈지, 흰쭈지, 고방오리, 홍머리오리 등



바쇼의 시비

'후루이케야 가와즈토비코무 미즈노오도 (운치있는 연못 속으로 뛰어드는 개구리가 자아내는 물소리)'라는 가장 유명한 시(하이쿠)가 적힌 석비가 정원 내에 세워져 있습니다.



연못에 뛰어오듯 이 스키야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정원을 일본 정서가 가득 담긴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료테이는 1909년에 국민으로서 방일한 영국의 키치너 원수를 모시기 위해 이와사키가가 지은 것입니다. 1985년에 전면적인 개축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도쿄도 선정 역사적 건조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소와타리

연못가에 징검다리를 설치하여 사람이 걸어들 수 있게 했습니다. 날찍한 연못의 조망을 즐길 수 있고, 또한 한걸음 한걸음 갈 때마다 경관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습니다.



다이쇼 기념관

다이쇼 천황의 장례식을 위해 사용된 장례용 건물을 이축한 것입니다. 원래 건물은 전쟁으로 인해 소실되고 말았지만, 1963년에 테이메이 황후의 장례식장에 사용된 재료를 이용해서 재건되었고, 그 후 1989년 4월에 전면적으로 개축되었습니다. 집회장으로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